

전주시, AI 간편 치매 체크 서비스 제공

내달부터 60세 이상 시민 대상·무료 이용... 스마트폰으로 1분 만에 치매 위험도 검사 가능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AI 간편 치매 체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AI 간편 치매 체크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검사로, 시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AI 바우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를 지원 받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60세 이상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전화(1668-4712)를 걸어 발송되는 문자의 링크로 접속하거나, 홍보물의 QR 코드를 통해 간단한 개인정보(연령, 성별, 교육 수준 등)를 입력하면 약 1분 정

도 말하기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완료 후에는 음성 답변을 기반으로 언어 유창성 및 의미역력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게 되며 정상군일 경우에는 치매예방수칙을 안내하게 된다. 또, 치매 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전주시치매안심센터나 전주시 치매검진 협약의료기관으로 방문해 선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단, 전화를 통한 서비스 접속은 오는 7월부터 이용 가능하며,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검사할 수도 있다. 한편 치매 위험도의 체크를 위해 발송되는 문자의 링크로 접속하는 것은 요즘 급속히 유행하는 스미싱 인지 여부 확인의 어려움이 있어 시행 과정에 적절한 보안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치매 위험도 통보시 단순 수치나 해당 등급 뿐만아니라 치매로 인해,

스마트폰의 스미싱 링크를 눌러서 엄청난 재산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고 문자도 통보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AI 간편 치매 체크는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팀이 10여 년간 연구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분포인트원이 개발·공급하며, 이 기술은 수 차례의 임상시험을 거쳐 최고정확도 93%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 치매 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20일 시청에서 2024년 상반기 임기만료 퇴직동장 공로패 수여식을 열고 지난 1월~6월 통장 임기가 만료된 퇴직한 127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임기만료 퇴직동장 공로패 수여식

전주시, 통장 임기 만료 퇴직자 127명에 노고·감사의 뜻 전해

전주시는 2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임기만료 퇴직동장 공로패 수여식'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통장 임기가 만료된 퇴직한 127명(완산구 71명, 덕진구 56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통장 재직기간 동안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정발전에 기여해 온 통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공로패를 받은 김도영 씨(효자동 27동장 역임)는 "일반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도 통장 임무 수행을 통해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전주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기 기자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1만8000명 서명서 전주시에 접수

"완주·전주 통합 이변이 마지막 기회... 65만 전주 시민의 통합에 대한 뜨거운 열망 확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20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65만 전주 시민의 통합추진 열망을 대신해 1만8,132명의 서명서를 전주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서명활동을 벌이며 전주 시민의 통합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3년 6월 26일 통합 실패 후 11년 만인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와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통합 실패가 혐오시설완주이전, 전주시채무폭탄, 각종복지혜택감소 등 왜곡된 내용의 광범위한 유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합으로 인해 완주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군민이 군지역 주민으로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20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65만 전주 시민의 통합추진 열망을 대신해 1만8,132명의 서명서를 전주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 받는 노인·청년 수당, 복지수당, 농업지원, 농촌지역 교육특례 등 혜택을 더욱 더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하여는 김관영지사와 함께 도내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반듯이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동시

에 조속한 시일내에 전주시의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완주군이 누리고 있는 복지, 세금, 농업지원 등에서 법령 및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추세에 있고 현재 92개 시군중 유일하게 전북도의 전주시와 완주군뿐이라고 지적했다.

완주·전주통합은 전북도의 발전과 완주군민, 전주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기회이고 더 이상 외면하고 방관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단체는 "이번 완주군민의 주민투표에서 완주·전주통합이 성사된다면 우범기 시장은 통합시장 불출마를 선언하고 완주군민이 원하는 지역에 통합 청사 입지를 조기에 선정하여 기공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회견을 마쳤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직원이 스팀 살균기로 대여용 스케이트를 소독하고 있다.

전주시설공단,빙상경기장 대여 장비 일제 정비

헬멧 250·스케이트 600여 개 등 살균 소독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시민이 쾌적하게 빙상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 장비를 일제 정비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 빙상경기장은 호남 유일의 아이스링크로 연간 13만여 명(2023년 기준)이 찾는 전주의 대표 공공 체육시설로 많은 이용객이 찾는 만큼 대여용 장비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단은 스팀 살균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대여용 헬멧 250여 개와 스케이트 600여 개, 장비 보관함을 살균 소독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 특성상 시민들이 빙상경기장을 이용하는 시간대를 피해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에 작업을 진행했다.

빙상경기장은 살균 소독 등 장비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낡은 대여용 장비를 새 제품으로 교체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공단 내부 혁신 학습동아리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특허를 등록한 대용량 헬멧 건조기를 활용해 헬멧을 상시 최적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장비 정비뿐 아니라 빈대 등 해충 방제를 위해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호남 유일의 아이스링크인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김세혁·이국·전윤미 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전주시의회 김세혁(비례대표), 이국(덕진·팔복·송천2동, 전윤미(효자 2·3·4동)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20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수상 의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및 현

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초지일반의 자세로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